

###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https://bit.ly/31moim))

###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나에게 '거룩한 멈춤'이라고 부를 만한 시간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 들어가며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멈춰 세우셨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 1. 육신을 따라 알던 그리스도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충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은 거룩과 정결을 제사장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또 율법에 충성하는 자신들 같은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실 정도로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전통들을 비판하시고, 결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울 뿐 자신들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눅 11:43-46).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교 정치 세력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기로 결의하기에 이릅니다(막 3:6; 요 11:47-50).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극악한 죄인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로 여겨졌기에(신 21:23), 과거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 2.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바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기존에 가졌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믿고 충성했던 모든 일들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멈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빌 2:5-8). 하나님은 죄인들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였습니다(롬 5:8).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바울의 삶 전반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셨습니다(빌 2:9-11).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워내고 내어주는 것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의지했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위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그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과제입니다.